



2025년 여름 계절학교 나.이.스.한 하루

“나 이제 스스로 한다!”

청소년기는 '나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또래 친구들과 함께하고, 스스로 크고 작은 선택을 해보며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연습을 시작합니다. 장애 청소년들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속에서 새로운 역할들을 경험하며 사회 속에서 나다운 모습을 찾아가는 중요한 시간이지요. 그러나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 제한된 기회들로 이런 자연스러운 성장에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우리 복지관에서는 장애 청소년들의 주체성 향상을 위해 매년 여름·겨울방학, 또래 친구들과 함께 하는 계절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 계절학교는 '나.이.스.한(나 이제 스스로 한다) 하루'를 주제로 8월 1일부터 14일까지 6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였으며, 이번 계절학교의 핵심은 자기주도활동이었습니다.

자기결정 능력은 삶의 방향을 스스로 그려갈 수 있는 힘입니다. 어떤 활동에 참여할지, 어떤 진로를 꿈꿀지, 그리고 일상의 작은 일들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삶의 선택들 앞에서 "내가 결정하는" 경험은 곧 자립으로 이어집니다. 누군가 대신 정해주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길을 걸으며 성취와 만족을 느낄 때, 참여자들은 자신이 사회의 주체적 구성원임을 확인합니다. 작은 결정에서 출발한 경험은 점차 더 큰 삶의 결정으로 확장되고, 이는 성인기 이후의 자립과 직결됩니다.

참여자들은 자치회의를 통해 하고 싶은 활동들을 공유하고, 활동내용을 스스로 결정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참여자들의 계획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자유활동(인생네컷, 코인노래방), 지역사회활동(롯데월드), 스포츠활동(볼링), 짝활동(2인1조 소그룹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주체적으로 활동을 진행하면서 참여자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자연스럽게 내는 법, 그리고 친구와 생각을 나누며 의견을 조율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더불어 직업활동을 진행하여 청소년기의 끝자락에 있는 참여자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와 취업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발달장애인이 근무하는 '굿월스토어'와 '더원발달지원센터' 등을 견학하며 다양한 직업세계를 경험했습니다. '꿈 그리기' 활동을 통해 어른이 된 자신의 모습을 꿈꾸고, 하고

싶은 일을 고민하며 한 층 더 성장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었는데, 서로 이야기와 좋아하는 취미를 나누고, 같이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완전 행복했어요.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해서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이오은 참여자)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친해지고 꿈을 그려보는 것도 재밌었고, 자치회의 하면서 직접 친구들과 회의해본 게 신났어요”

(이오소 참여자)

10일의 여정 동안 참여자들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자신을 발견하고, 친구와 함께 성장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경험, 서로 다른 욕구와 생각을 존중하며 함께 의견을 모아간 이 경험들이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데 든든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영상보기

함께 만들어가는 복지관의 내일

미션·비전 재수립 전 직원 워크숍

조직은 하나의 배와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대로 노를 짓고, 돛을 조정하며, 항해를 이어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선원들이 모여 있어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배는 결국 표류하고 맙니다.

조직에 있어 미션과 비전은 바로 그 항해의 방향을 정하는 나침반이자 등대입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할지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미션과 비전이죠.

우리 복지관은 2026년 개관 1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9년간, 2016년 개관 당시 세운 미션 “치유와 회복! 모두의 행복을 위해 소통하는 협력자!”와 비전 “비전2025! 치유와 회복 그 중심에 서다!”를 바탕으로 달려왔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다양한 변화를 일구어왔습니다.

이제 지나온 10년을 딛고, 다가올 2030년까지의 새로운 여정을 준비하고자 미션 비전을 재수립하는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그 과정의 일환으로 총 4차에 걸쳐 미션 비전 재수립 전 직원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재복 전 서울시립장애인복지관장의 컨설팅을 받으며, 복지관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전 직원이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워크숍에서는 조별로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며 우리 복지관의 강점과 약점, 지역적 특성과 사회의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사회복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 지, 향후 5년간 어떤 목표를 세우고 어떤 모습으로 지역사회 속에 자리매김할지를 직원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습니다. 단순히 문구를 정리하는 작업이 아니라 “우리 복지관은 왜 존재하는가?”, “앞으로 어떤 복지를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미래를 함께 그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미션 비전을 재수립하는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이어질 전 직원 및 중간관리자 워크숍, TF 회의를 통해 완성될 새로운 미션과 비전은 핵심가치 이슈와 전략과제로 구체화되어, 복지관이 2030년까지 나아갈 청사진을 담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여정을 준비하는 우리 복지관의 발걸음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사의 길로, 한 걸음 더 가까이

2025년 하계 사회복지현장실습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22일까지 우리 복지관에서는 2025년 하계 사회복지현장실습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실습에는 두 명의 특별한 예비 사회복지사가 함께했는데요. 한 명은 꾸준히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이어오던 익숙한 얼굴이었고, 다른 한 명은 장애 당사자로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실습에 참여했습니다.

실습생들은 장애인복지에 대한 이해와 사회복지사의 역할, 사람중심실천, 장애인식개선, 회계 및 행정 등 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한 기본 소양을 익혔습니다.

또한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과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타 복지시설의 운영체계와 실천방식에 대해 폭넓게 배우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특별히 여름 계절학교에 함께하며 직접적인 지원역할을 수행했는데요. 현장속에서 부딪히며배우는 경험은 실습생들에게 큰 성장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실습의 마지막 날에는 그동안의 배움을 바탕으로 직접 신규 사업 아이디어를 기획해 사업 계획서를 발표했습니다. 복지관 직원들의 피드백을 통해 시야를 넓히고,



사회복지사로서의 기획 역량도 한 단계 성장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언젠가 현장에서 당당히 서서 함께 일할 동료가 되기를 기대하며,

한 명의 사회복지사로 바로 서기 위해 묵묵히 준비하고 있는 두 실습생들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릇 위에 나의 마음' 작품으로 특선 수상한 오동통대학 참여자들.



▲도기토끼팀의 작품 '깁(깨어남)'과 도자기를 만들고 있는 참여자.

제20회 전국장애인도예공모전

'특선' 수상

오동통대학·도기토끼

우리복지관의 오동통대학 학생들과 아동 도예 프로그램 '도기토끼'의 참여자들이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바로 한국재활재단에서 주최한 제20회 전국장애인도예공모전에서 '특선'을 수상했다는 소식인데요.

이번 공모전을 위해 두 팀은 지난 1학기 민교육연구소 도자기 공방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도기토끼 참여자들은 '깁(깨어남)', 오동통대학 학생들은 '그릇 위에 나

의 마음'이란 제목의 작품을 제출했는데요. 한땀 한땀 정성을 담고, 도자기를 만드는 기쁨을 배우며 끊임 없이 도전한 시간이 모여 이번 결실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과정 전반을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민교육연구소 도자기 공방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그리고 함께 힘을 모아 작품을 완성해 낸 모든 참여자들에게

축하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영상보기

편집자의 말 |

이번 달의 주제는 '움트다'입니다.

새싹이 움트는 순간은 언제나 작고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움직임은 머지않아 큰 나무로 자라나는 시작이 되지요. 씨앗이 흙을 밀어 올리며 세상 밖으로 얼굴을 내밀 때,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이 시작되는 찰나를 목격하게 됩니다.

이번 달 복지관에는 그런 새로운 가능성이 시작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활동을 기획하고 친구들과 즐거운 경험을 쌓았던 여름 계절학교, 복지관의 새로운 여정을 준비하며 진행된 미션 비전 재수립 워크숍, 사회복지의 길로 한 걸음 더 내딛은 예비 사회복지사들의

실습, 그리고 오랜 정성 끝에 수상으로 이어진 오동통대학과 도기토끼 참여자들의 이야기 까지. 아직은 작지만, 미래를 향해 싹을 틔운 이야기들입니다.

움트는 것은 단순히 시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껍질을 뚫고 나오는 용기, 그리고 자라날 시간을 응원하며 함께 기다려주는 마음이 모여야 가능한 일이지요.

이번 호에는 그런 따뜻한 순간이 담긴 이야기들을 모았습니다. 우리 복지관에서 시작된 새로운 가능성들이 어떤 열매로 이어질지 함께 지켜봐주세요.

김동현 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인 동안복지재단
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을 검색하시면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